

[포ID-21] '2009 세계 천문의 해' 경과보고: 교육문화 부문

문홍규¹, 이희원², 이명현³, 채종철⁴, 정현수¹, 김웅태⁴, 이경숙¹, 김지혜¹, 윤선희¹,
현성경¹, 강영운², 양종만⁵, 박석재¹

¹한국천문연구원, ²세종대학교, ³연세대학교, ⁴서울대학교, ⁵이화여자대학교

2009 세계 천문의 해 한국조직위원회 교육분과와 문화분과에서는 학생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교육 부문에서는 “교실에서 천문학자를 만나다”라는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갈릴레이 망원경” 사업을 통해 조립과 사용이 간편한 소형 천체망원경을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고 있다. 이밖에 과학자 사회에서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그녀는 천문학자” 프로젝트와 인터넷 콘텐츠 개선을 위한 “천문학 지식사전” 외에도 갈릴레오 교원천문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문화 부문에서는 “하늘을 보는 눈” 국문판 2판 발간 이후, 별과 우주를 주제로 한 50편의 신작 별 시를 묶어 “별은 시를 찾아온다”라는 이름으로 시집을 출간했으며, 아태이론물리센터와 공동으로 천문학 책 저자가 중소도시 도서관을 방문, 강의하는 행사를 펼치고 있다. 지난 2월과 5월에는 워크숍을 통해 천문학자들과 SF 소설가, 만화가들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워크숍 참여 작가들의 우주를 테마로 한 소설을 엮어 SF 단편집을 출간한다. 뿐만 아니라, 플라네타륨 폴-돔 영상과 함께 ‘스페이스 뮤직’을 선보여 갈채를 받았으며, 카가야 스페이스 일러스트 전시회 이후 미디어아트와 설치미술 형태로 시공과 우주를 재구성하는 싸이아트 전시회를 기획, 진행 중에 있다. 이밖에, 문화분과에서는 “천문학, 영화에 빠지다” 이벤트와 부천판타스틱 영화제 환상영화학교 개최, SETI-Korea 사업 착수 등 새로운 결합과 시도를 모색하고 있다.

[포ID-22] '2009 세계 천문의 해' 경과보고: 미디어 학술 부문

문홍규¹, 홍대길², 김천희³, 이강환⁴, 민영철¹, 이경숙¹, 김지혜¹, 현성경¹,
윤선희¹, 강영운⁵, 양종만⁶, 박석재¹.

¹한국천문연구원, ²(주)사이유, ³충북대학교, ⁴국립과천과학관, ⁵세종대학교, ⁶이화여자대학교

2009 세계 천문의 해 한국조직위원회 미디어 분과에서는 교육, 문화, 행사, 학술 분야 사업에 대한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뿐만 아니라, 이들 활동부문과 긴밀한 협조 하에 다양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 미디어 분과에서는 “달 착륙 40, 달 과학 40” 사업의 일환으로 달 특집 다큐멘터리 기획에 참여하는 한편, 국내 일간지, 과학잡지, 어린이 잡지 등에 달 과학에 대한 특집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 인류를 위한 달”(Moon for All Mankind)이라는 이름을 건 국제 캠페인에 참여했다.

7월 22일에는 대학, 시민천문대 등과 공동으로 전국 40여개 소에서 부분일식 관측행사를 벌였으며, 웹 진, 네이버, 다음 등과 웹 생중계를 진행했다. 그러나 일식이 일어나는 동안 인터넷 접속이 폭주, 서버가 다운돼 실제로는 인터넷 중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일식 관련 소식은 국내 언론에 400건 이상 보도되었으며, 22일 하루 동안 IYA2009 웹 진의 페이지 뷰 건수는 2천만 건을 상회했다. 이와 함께 조직위원회는 과학동아, 과학소년, 소년한국일보 등과 함께 매달 IYA2009 특집 기사를 싣고 있으며,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 국내 일간지, 인터넷 신문 등과 공동기획을 통해 특집 기사 또는 기획 기사를 연재한 바 있다. 2009 세계 천문의 해 한국조직위원회 공식 웹 진(www.astronomy2009.kr)에 수록된 언론보도 건수는 2000건이 넘는다. 학술 부문에서는 IYA2009 기념 학술대회와 한-이탈리아 특별 세미나, UN 기초우주과학 워크숍이 열렸으며, 10월과 11월에는 IYA2009 기념 한림 심포지엄에 이어 IYA2009 기념 한-이탈리아 상대론적 천체물리 워크숍이 예정돼 있다.